

세례자 요한의 설교

도메니코 기를란다오

(Domenico Ghirlandaio, 1448-1494)

1485-1490, 프레스코화

산타 마리아 노벨라성당, 이탈리아 피렌체

입당송 | 필리 4,4,5 참조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제1독서 | 스바 3,14-18 ㄱ

화답송 | 이사 12,2-3.4.ㄴ.ㄷ.5-6(◎ 6)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

○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제2독서 | 필리 4,4-7

복음환호송 | 이사 61,1 참조(루카 4,18 인용)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음 | 루카 3,10-18

영성체송 | 이사 35,4 참조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승정 베네딕토 신부 | 사제평생교육원

루카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번갈아 등장시킵니다. 요한의 출생 예고(1,5-25)에 이어 예수님의 탄생 예고(1,26-38)를 전하고, 요한의 출생과 성장(1,57-80)에 뒤이어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2,1-52)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3,1-20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세례 운동에 대해 기술하는데, 이것 역시 뒤따르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준비하는 문학적 배치입니다.

3,1-3에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 운동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3,4-6에서 세례 운동을 이사야 예언의 실현으로 해석한 후, 3,7-9은 요한의 회개 요청을 직접화법으로 전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청하는데, 10절부터 등장하는 군중과 세리와 군사들의 반복되는 질문,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는 바로 그 합당한 열매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데, 7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를 소리쳤던 요한이 그들의 질문에는 자상하게 대답합니다. 그에게 질문하는 이들은 적어도 회개를 향한 마음을 갖춘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먼저 군중에게 ‘나눔’을 요청합니다. 회개가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것이라면, 회개의 열매는 이웃을 향한 자비와 자선, 그리고 선행이라고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됩니다. 같은 질문을 던지는 세리와 군인들에게 요한

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불의하게 사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제국의 편에서 일하던 세리와 군인들이 공정하고 절제된 형태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예언자들이 노래했던 신적 정의와 공정에 부합합니다.

3,15은 요한의 신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백성을 향해 요한은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닌 메시아(=그리스도)에 대해 예고합니다. 자신은 물론 세례를 주지만,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실 것이라고, 그리고 요한은 메시아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추수한 농부가 타작하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 메시아는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물과 불로 정화된 이들은 곳간에 모이고, 다른 이들은 불태워질 것이라고, 요한은 성령을 받아들인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을 예고합니다. 이는 누군가에게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경고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쁨은 스바니야서에서 “딸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이스라엘아, 크게 소리쳐라. 딸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3,14)라고 노래한 기쁨이고, 성 바오로가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필리 4,4)라고 권고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해, 대림 셋째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례자 요한의 설교

회개는 ‘고귀하신 성모 마리아성당’ 안에 성모님과 피렌체의 주보 성인이었던 세례자 요한의 일생을 다룬 연작을 그렸습니다. 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죽기까지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있음을 알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그는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의 삶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합니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화
해설

내가 성당을 찾는 이유



장희진 로사 | 배우

저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고, 슬퍼도 행복한 척하며 아픔을 어떻게든 숨기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인데, 왜 그렇게 싫을까요. 아마 저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약점 잡히면 어쩌하나 하는 두려움, 혹시 무시라도 당하면 어쩌하나 하는 두려움, 그런 수많은 두려움이 제 안에 웅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그런 두려움 속에서 온전히 빠져나왔다고 자신하기는 어렵지만, 요즘은 그런 견고한 제 안의 장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성당에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성당에만 오면 저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꾀꾀 싸웠던 자존심의 장막이 풀어집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거든요. 미사를 드릴 때는 아예 세상에서 가장 작고 나약한 어린이가 됩니다. 그야말로 주님 바짓가랑이에 매달리는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매달리며, 울거나 절박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성당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감추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누구든 다 마찬가지로 위안이 오하려 차오릅니다. 함께 성당에 다니는 언니도 눈물이 참 많은데요, 미사드릴 땐 언니가 우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땐 저도 더 열심히 기도드리게 됩니다. “주님!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싶어요! 저를 잊지 마세요!”라고 말이지요. 약한 모습을 서로 보이지만, 오히려 서로 더 힘을 얻는 셈입니다. 그렇게 함께 미사를 드리고 나오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고요해지는지 모릅니다. 미사 후에 같이 언니와

밥을 먹으면서 고민을 털어놓다 보면, 정말 큰 힘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일로 만난 사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끈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언니같이 믿음 깊은 사람이라면, 남들에게 하지 않는 이야기나 내 고민을 털어놓아도 지켜줄 것 같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는 내친김에 신부님과 함께 공적으로 ‘가톨릭 배우 모임’(카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회원들이 없어져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모임이라고 들었는데, ‘미사 메이트’ 언니와 함께 의기투합했습니다. 작은 모임이었지만, 점점 사람들이 모여 북적북적해지고 있습니다. 제 공로를 챙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임 때마다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면 뿌듯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랫동안 냉담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다시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에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미사 메이트’ 언니와 신앙 안에서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새 회원들과도 꼭 그런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 그분들 앞에서 제 약점을 보이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죠?

정치란 가장 높은 형태의 자선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님, 2013년 9월 성녀 마르타의 집
소강당 미사 강론 중, 정치는 본질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인 울타리가 되어야 함을 설명하시며 -



마르코와 함께 떠나는 복음 여행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이명제 요셉 신부 | 문화홍보국 부국장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은 그분의 시신 대신 천사로 보이는 한 젊은이만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죽음의 그늘 아래 있지 않고 되살아나셨다고 전합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지내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보다 먼저 갈릴래아에 가 계실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그분을 뵈게 될 것”(마르 16,7)임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란 여인들은 무덤을 뛰쳐나와 도망쳤고, 두려움에 떨떨 떨면서 그 소식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직접 일곱 마귀를 쫓아내셨던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 당신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려줍니다. 분명 그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선 여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녀의 과거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임을 예고하셨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까맣게 잊고 그녀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또 다른 이의 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전한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제자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마르 16,14)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는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십니다.

마르코가 남긴 부활 사회를 처음 접했을 때, 왜 제자들이 아닌 다른 이에게 먼저 나타나셨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물론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이들에 대해 조금 다르게 증언하지만(1코린 15,5 참조) 마르코는 부활의 첫 목격자, 그리고 그 사실을 용감하게 전한 이는 주님을 가까이 모시던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한 여인, 그것도 큰 죄를 용서받고 회개한 여인 마리아 막달레나였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권위를 깎아내리거나 부정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그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이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의 증언이 전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아니 그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부터 완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주님께 호되게 꾸짖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밝혀주신 복음을 인간뿐만 아닌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전하라는 사명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전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심판 (종말론)



진인길 요한보스코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대림 시기입니다. 교회는 대림을 두 시기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제안합니다. 후반부에는 세례자 요한의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하고, 전반부에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두 번째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지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뿐 아니라 왕좌에 올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재림 또한 함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심판이란 말을 듣는 순간, 나의 잘못과 죄가 낱알이 밝혀지고 무시무시한 처벌을 받는 법정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심판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핍박하던 원수들을 심판대에 세우고 그간의 수치와 모욕을 갚아주실 거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그들이 애타게 기다린 심판관은 정의롭고 권능에 가득 찬 분이어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심판관은 어떤 분이셨나요? 그분은 당신의 지상 여정 중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신 분, 십자가 위에서 암흑과 같은 고난을 당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심판관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닌, 새로운 심판의 기준이 세워질 것만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기준은 마태오복음 25장 31-46절에서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그분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 사람들을 가르겠다고 분

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준 사람은 양으로 분류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장소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염소로 분류되어 영원한 벌을 받는 장소로 가게 된다고 말이지요. 그렇게 그분은 가난한 사람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셨고, 궁핍한 자들에게 했던 모든 행위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 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그분의 심판 기준은 우리가 저지른 과오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작은 이들에게 한 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를 통해 심판은 법령과 규정을 통한 최종 결과가 아니라 현재의 활동으로 이어지는 창조적인 행위로 전환됩니다.

“하느님께서 이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요한 3,17) 그리스도의 심판은 보상이나 형벌, 단순한 판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심판 덕분에 인간의 행동은 새로운 의미를 입게 되었으니까요. 하느님은 우리를 결코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며 심판으로 매 순간 우리가 행동하며 살도록 초대하십니다. 이 거룩한 초대에 응답하며 그분의 오심과 심판을 기쁘게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누가?



정지원 바오로 신부 | 살레시오회(돈보스코 심리발달연구센터)

고2 연수(가명)는 웃는 모습이 예쁘고 말도 조곤조곤 귀엽게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연수는 자신이 주의력결핍장애(이하 ADHD)가 아닌지 걱정했어요. 과제를 하다가도 읽고 싶던 책이 생각나면 하던 것을 그대로 둔 채 그 책을 다 읽고 나서야 과제를 계속할 수 있었거든요. 중요한 소지품을 1년 사이에 열 번 가까이 잃었다가 다시 찾기도 했고요. 그러다 학교에 늦는 횟수가 늘고 친구와 약속 시간을 맞추는 것도 힘들어졌다는군요.

저는 정신진단편람(DSM-5)을 참고하여 각 항목들을 꼼꼼히 체크해 가며 연수의 의문에 동반했어요. 결론은 '연수는 ADHD일 가능성이 낮다!'였어요. 저는 연수에게 ADHD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근거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연수는 잘 이해했고 안심했어요. 연수와 조금 더 깊은 대화를 해보니, 우리 친구는 정서적 돌봄과 마음 챙김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이처럼,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ADHD 증상으로 쉽게 진단 내리기보다,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연수의 부모님은 연수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혼하셨고, 현재 연수는 재혼한 아빠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혼 전과 다름없이 아빠는 딸의 정서를 억압하거나 방치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통제하는 양육(이런 건 양육이라 하지 않고 학대, 방치라고 하지요?)을 하고 있었어요. 새엄마는 아빠와 함께 며칠 동안 집을 비우고 골프 여행을 밥 먹듯이 다녔고요. 연수가 방 정리

를 미흡하게 하거나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와 다니면 장문의 문자나 카톡 폭탄을 투하하며 종일 괴롭혔어요.

주의력이나 의지력은 근육 같은 거라서 어느 정도 사용하면 잠시라도 쉬어야 다시 쓸 수 있죠.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해요. 한 곳에 주의력이나 의지력을 소진하면 더 이상 쓸 게 남아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연수처럼 스트레스가 가득한 환경에 사는 청소년들은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정서적 압력이 커서 정작 주의력이나 의지력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에서 힘을 잃고 어려워하기도 해요. 그런 이유로 언뜻 보면 ADHD 증상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 부모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을 조금만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행동에 집중하며 꾸준하고 비난하기보다 그럴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건 아닌지 살펴봐 주시길, 그들이 불필요한 곳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 관심 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의 모습을 조금 더 닮아가는 우리 어른들이 되자구요.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에게서 나오는 자비와 의로움으로 당신 영광의 빛 속에서 이스라엘을 즐거이 이끌어 주시리라.”(바룩 5,9)

명동, 겨울을 밝히다

장미 정원 & 빛 축제

2024년 11월 30일(토)~
2025년 1월 5일(주일)



성탄 마켓

12월 24일(화) 11시~21시
12월 25일(수) 10시~20시30분

연극 '네 번째 동방박사'

12월 24일(화) 16시, 19시
12월 25일(수) 16시(파밀리아 채플)



성모동산 '야외 공연'

- ▶ 12월 24일(화)
 - 18시 40분 cpbc 소년소녀합창단
 - 19시 40분 cpbc 소년소녀합창단
 - 20시 40분 퓨전국악밴드 그라나다
- ▶ 12월 25일(수)
 - 17시 40분 마니피캣 어린이 합창단
 - 18시 40분 마니피캣 어린이 합창단
 - 19시 40분 퓨전국악밴드 그라나다

갤러리1898 '성탄 전시'

- ▶ 회년 기념 특별전 「희망의 빛」
12월 15일(주일)~22일(주일)
- ▶ 서울대교구 가톨릭청년미술가회
「언덕 위에 등대 - 명동대성당」
12월 24일(화)~31일(화)

cpbc 공개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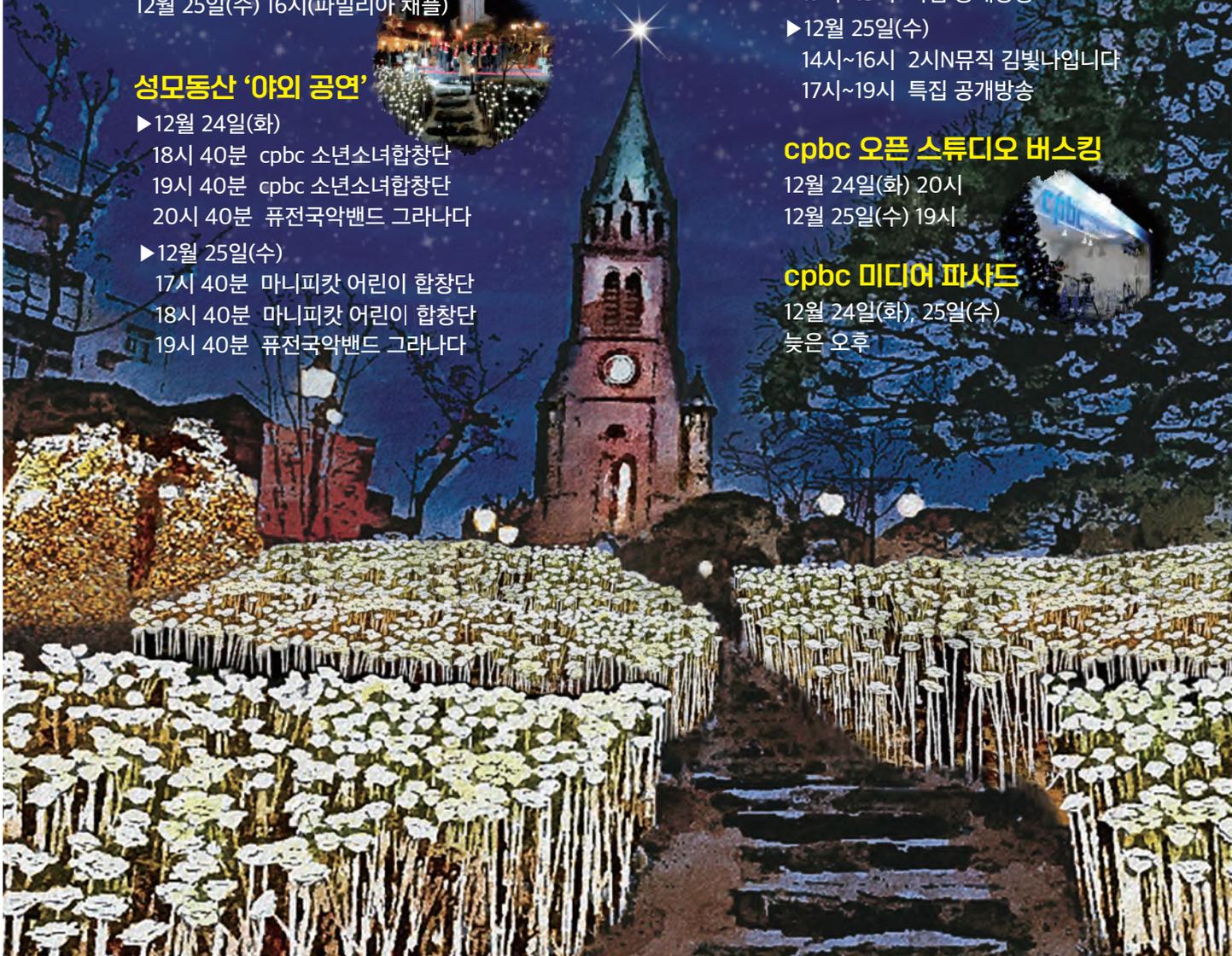
- ▶ 12월 24일(화)
 - 12시~14시 신신우신
 - 14시~16시 2시N뮤직 김빛나입니다
 - 17시~19시 특집 공개방송
- ▶ 12월 25일(수)
 - 14시~16시 2시N뮤직 김빛나입니다
 - 17시~19시 특집 공개방송

cpbc 오픈 스튜디오 버스킹

12월 24일(화) 20시
12월 25일(수) 19시

cpbc 미디어 파사드

12월 24일(화), 25일(수)
늦은 오후



12월 15일(대림 제3주일)은 '자선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2025년 정기 회년 장엄 개막 미사 및 전대사 안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2025년 정기 회년(12월 24일~2026년 1월 6일)을 맞아, 우리 교구의 정기 회년 장엄 개막 미사 및 전대사 조건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2025년 정기 회년 장엄 개막 미사

일시: 12월 29일(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낮 12시

장소: 주교좌 명동대성당 / 집전: 교구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구 주교단

2) 2025년 정기 회년 전대사

2025년 정기 회년 기간 중 12월 29일 ~ 2025년 12월 28일에

기본 요건

- ㉑ 각자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고, ㉒ 미사 영성체를 하고,
- ㉓ 교황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매일미사 첫 페이지 교황님의 기도 지향 참조)

기본 요건과 더불어

- ㉔ 아래의 회년 전대사 수여 순례지 중 한 곳 이상 방문하여
 - (1) (긴) 순례의 경우:
 - 미사 또는 말씀의 전례 또는 시간 전례(성무일도 독서기도, 아침기도, 저녁기도 중 하나), 또는 십자가의 길 또는 목주기도를 바칩니다.
 - (2) 거룩한 장소로의 경건한 (비교적 짧은) 방문일 경우:
 - ㉕ 성체조배와 묵상기도 후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며,
 - ㉖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간구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 ㉕ 한편, 첨부된 교황청 내사원의 '전대사 수여 교령'의 (III. 자비와 참회의 활동)을 실천할 때에도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 ㉗ '자비의 육체적 활동'을 통한 전대사 / ㉘ '자비의 영적 활동'을 통한 전대사 / ㉙ 성당이나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 교황님의 뜻과 부합하여 열리는, '대중 선교 활동'이나 영성 수련 혹은 공의회 문헌이나 가톨릭 교회 교리서 강좌를 신실한 마음으로 참여함으로써도 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교황청 내사원, 2025년 회년 동안 대사를 수여하는 교령 참조)

* 2025년 정기 회년 전대사 수여 지정 순례지

주교좌 명동대성당 · 용산 성직자 묘역 · 천주교 용인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 천주교 서울순례길 안에 있는 순례지

1코스 <말씀의 길> : 명동대성당 · 김범우의 집 터 · 한국 천주교회 창립 터 · 좌

포도청 터 · 종로성당 · 광희문 성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석정보름우물

2코스 <생명의 길> : 가회동성당 · 광화문 124위 시복 터 · 형조 터 · 의금부 터 ·

전옥서 터 · 우포도청 터 · 경기감영 터 ·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3코스 <일치의 길> : 종림동 약현성당 · 당고개 순교성지 · 새남터 순교성지 · 절

두산 순교성지 · 노고산 성지 · 용산예수성심심학교 · 왜고개 성지 · 삼성산 성지

※ 순례 코스 중 순례지 한 곳 이상 방문하여 대사의 기본 조건을 이행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으나 중대한 이유로 다양한 장엄 거행과 순례와 경건한 방문에 참여할 수 없는 신자들(특히 봉쇄 수도원의 수도자들, 그뿐 아니라 노인들, 병자들, 수감자들, 그리고 병원이나 그 밖의 돌봄 시설에서 일하면서 병자들에게 지속적인 봉사를 제공하는 이들)은, 그에 직접 참여하는 신자들과 영적으로 결합해 있으면서, 자기 집에서 또는 자신들을 매어두는 어느 곳에서든(예를 들어, 봉쇄 수도원, 병원, 요양원, 감옥의 경당), (특히 교황 성하나 교구장 주교님의 말씀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때에) 주님의 기도와 어떠한 형태로든 승인받은 신앙 고백 그리고 성년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밖의 기도를 바치고, 자기 삶의 고통이나 고난을 봉헌한다면, 동일한 조건 아래, 회년 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00년 12월 20일 이내수 아우구스티노 신부(38세)
- 1953년 12월 17일 이선용 바오로 신부(56세)
- 2011년 12월 22일 용동진 바오로 신부(56세)
- 2013년 12월 20일 김진규 다니엘 신부(36세)
- 2014년 12월 21일 박노현 요한크리스토포스 신부(67세)
- 2021년 12월 22일 김택암 베드로 신부(83세)

교구청 알림

명동대성당 2025년 하반기 혼인예약

7월~12월: 2025년 1월10일(금) 14시, 대성당 낮 12시 성당마당 부스에서 주침 순서번호표 배부. 한 커플당 하나의 번호표만 수령 가능. 이중주침, 양도목적 등 위반 적발 시 혼인예약이 불가합니다 / 문의: 02)774-1784

7월~12월: 2025년 1월~2월 중 주침 예정(주침 일정 별도 공지)

2) 혼인 가능 장소, 요일 및 시간

대성당	금요일	13시
	토요일, 공휴일	12시 · 15시
파밀리아 채플	금요일	17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1시 · 14시 · 16시

3) 예약 시 필수 준비사항: ① 교적사본 1부(신랑 ·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만원(현금 또는 수표 / 계좌이체 · 카드불가) 명동대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 '혼인성사' → 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갤러리1898 회년 기념 특별전 <희망의 빛>: 전관
전시일정: 12월15일(일)~22일(일)

향심기도 2박3일 집중피정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이승구 신부
때: 12월27일(금) 17시~29일(일) 16시 / 회비: 14만원
곳: 명상의집(우이동) / 문의: 010-4565-8898

'슬픔 속 희망찾기' 12월 유가족 월례미사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 집전: 이문수 신부
때, 곳: 12월21일 매일 세번째(토) 10시(목주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시복시성기원미사(205회), 합창단원 모집

1) 시복시성 기원미사 / 문의: 02)2269-0413
이 달의 하느님의 중 '민운명 프란치스코'
때, 곳: 12월17일(화) 오전 10시, 절두산 순교성지
2) 합창단원(성가대) 모집
대상: 성가를 좋아하는 62세 이하 교우, 매월 2회 평일 오전 미사참례 가능한 분
연습: 매주(월) 19시, 가톨릭회관(명동)
문의: 010-3898-3408(단장)

발달장애인 첫영성체 교육 담당자 연수

때, 곳: 2025년 1월5일(일) 10시~17시, 영성센터(명동)
회비: 5만원(교재, 식사 포함)
접수: 이메일(cafema@cafema.or.kr) 접수 / 양식-홈페이지
문의: 02)727-2107 청소년국 장애인신앙교육부

제69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때, 곳: 12월19일(목) 11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명동)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 문의: 02)727-2278, 2283
주례: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가톨릭 인성교육 봉사자 모집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실 '인성교육' 봉사자를 학교사목부에서 모집합니다
대상: 결전성사 받은 신자, 만 20세~60세(2005~1965년생)
곳: 가톨릭청소년회관(연삼동)
자격교육: 2025년 1월7일~9일, 1월14일~16일(2주간 총 6일)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홈페이지에 서류양식)
접수기간: 11월26일~2025년 1월3일
회비: 10만원(30시간 특강, 식대, 간식비 포함)
문의(기타): 02)553-7320(일 · 월 휴무) 학교사목부 사무실 / 홈페이지(www.kycc.or.kr)

1447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12월17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복본당': 함흥교구 성진 본당
문의: 02)727-2420

2025 토요 성모신심 미사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 강사: 조창수 신부
내용: 참된 신심
때, 곳: 매주(토) 15시~16시, 가톨릭회관 205-2
프랑수르드 8일 파장: 8월13일~23일 / 조창수 신부(피정지도)
문의: 010-8889-5425(문자) 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인준단체 알림

모임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9518-1601
때: 매주(금) 19시~21시45분 / 축복기도: 치유은사자 8명
곳: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강사: 말씀은사자

성체현시와 성모송 천변 기도회

때: 12월16일(월) 12시30분~17시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14동작지구 성령새신봉사회 낮 피정

문의: 010-3341-1354
때, 곳: 13시~16시, 동작동성당 3층 대성전

12월17일(화)	김재덕 신부	2025년 1월21일(화)	김현우 신부
-----------	--------	----------------	--------

피아골 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피정	2025년 2월25일~26일
2025년 이탈리아 일주	5월14일~25일
홍성남 신부와 도교	3월10일~14일
남규수 이브스키	5월6일~10일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12월21일(토)~22일(일), 2025년 2월14일(금)~15일(토)
3박4일	2월26일(수)~3월1일(토), 3월27일(목)~30일(일)
4박5일	2월17일(월)~21일(금) / 성직자 외
8박9일	12월26일(목)~1월3일(금), 1월6일(월)~14일(화)
40일	12월14일(토)~1월22일(수)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2025년 1월3일 10시~15시30분
대림 피정	12월17일 매주(화) 10시~16시
송년 피정	12월31일~1월1일(1박2일)
다네이영성수련(대침목)	1월10일~12일(2박3일)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경당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평화의 모후 청년 쉼 모임(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예수전교회 치유대피정

때: 12월21일 오후 1시~5시(4시 토요일전미사)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강사: 한정옥
담당: 김인성 신부 / 문의: 010-8898-6770

3지구 매월 셋째(주) 무료 치유 피정

문의: 010-4444-1264
내용: 말씀치유기도, 찬양, 미사, 안수 / 점심 무료 제공
강사: 양종석 신부(의정부교구 호평성당 주임)
때, 곳: 12월18일(수) 11시~16시, 갈현동성당 지하강당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사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 010-9363-7784
때, 곳: 12월20일~23일·2025년 1월3일~6일·1월17일~20일·2월7일~10일·2월21일~24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연말연시 12월29일~2025년 1월1일(한라산·해남이·해돋이), 한라산 포함 1월11일~13일·1월16일~18일·1월20일~22일·2월7일~9일·2월21일~23일·2월25일~27일, 자연순례 3월1일~3일·3월8일~10일·3월13일~16일(주차도)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지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때: 연말연시 12월30일~2025년 1월2일(한라산·해남이·해돋이), 한라산 눈꽃산행 1월17일~19일·1월23일~25일·2월8일~10일·2월14일~16일·2월22일~24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3월1일~4일·3월9일~12일, 생태순례 3월15일~17일·3월22일~24일·3월28일~30일 / 문의: 064)756-6009, 02)773-1463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노들담 첫영성체 교리서 비대면 연수(교리교재연구소)

때: 2025년 1월11일(토)·13일(월) / Zoom 이용
다음카페: '노들담 첫영성체' 검색 / 010-3829-7667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월)·(화)·(수)·(금)·(토) 13시30분
곳: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ECYD 청소년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그리스도 레지오회)

대상: 초5~6학년 남학생 / 문의: 010-6865-3765
때: 2025년 2월~5월 격주(토) 총8회 모임
카카오톡 채널: 그리스도레지오회

예수회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일상생활 속의 영신수련(영성·교리·신학 통합강좌와 영적수련)
때, 곳: 화요일오후반 14시~16시·목요일오후반 19시~21시, 비대면 온라인(8주 과정)
담당: 권효섭 신부 / 2025년 1월3일까지 접수
문의: 02)3276-7799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스페인어·이탈리아어 강좌

2025년 1월~2월 겨울학기 수강생 모집
개강: 1월2일(목)~8일(수) 강좌별로 상이함
주2회(문법·회화) 총 30시간, 8주 / 회비: 32만원
왕초보~고급반 단계별 맞춤형 교육
문의: 02)705-8718(http://secc.sogang.ac.kr)

서울대교구 북방선교회 중국어반(40차) 수강생 모집

곳: 가톨릭회관 202호 / 회비: 9만원(3개월, 교재비 별도)
개강: 2025년 1월8일(수) 기초·초급반, 1월9일(목) 중·고급반 / 인원: 기초·초급반 각 10명, 중·고급반 약간명
접수: 12월15일~1월9일 / 010-6314-0457 양 글라라

(수)	초급반 10시30분~12시30분, 기초반(말음연습) 13시30분~15시30분
(목)	중급반 10시30분~12시30분·고급반 14시~16시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대상: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15명 미만 지원학과 개강 안 됨 / 문의: 02)747-8501
접수: 2025년 1월17일(금)까지 / ci.catholic.ac.kr

교리교육학과	10시50분~15시40분(2년, 주5일)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종교교육학과	19시~21시35분(2년, 주4일)	
신학심화과정	10시50분~15시40분(1년, 주3일)	분원졸업생(교리·종교·통신과) 및 이에 준한 과정 이수자

제25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cpbccamp.com)

미국	2025년 1월15일~2월4일(3주) / UCLA·UC버클리·스탠포드 재학생 간담회, 유니버설, 디즈니랜드, 그랜드캐년,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사이판	2025년 1월11일~2월4일(4주) / 가톨릭국제학교 정규 수업, 마나기하섬, 워터파크 다양한 현지 액티비티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

2025년 1월 개강 /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월)	문화유산으로 보는 교회사(중세)	이진현 신부
(월)	비블리노드라마(성경드라마) 피정	김영근 신부
(월)	월요무로 피정-코헨렛 함께 읽기 개강: 12월23일	이근상 신부
(화)	고대 그리스의 시간과 그리스도교 신학	김민철 신부
(화)	구약성경 아카데미-모세의 삶과 신앙	주원준 박사

모집

청소년 자원봉사자 모집(성빈센트청소년회)

내용: 연탄나눔, 환경캠페인, 사회복지시설방문, 농촌 체험, 해외봉사 등 / 대상: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초6~고3
곳: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6번 출구
문의: 02)926-3440, 010-6880-9605(www.stvin.or.kr)

가르멜재속회원 모집(알베르토공동체)

대상: 만 55세 이하 세례 견진자
모임: 매일 넷째주(일) / 문의: 010-7673-5013

서울대교구 가톨릭청년미술가회 모집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가청회' 검색 후 문의 또는 문자(010-3098-2192) 문의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식당 자원봉사자 모집

때, 곳: 평일 10시~13시(요일 협의), 센터 B1
문의(접수): 070-7209-2938 전화 및 온라인 접수

은평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때: 주1회 3시간 / 분야: 안내봉사(종교 무관)
대상: 40세~65세의 심신이 건강한 남녀
문의: 02)2030-3456 자원봉사센터

한국오라토리오싱어즈 단원 모집(시스티나 음악원)

2025년 6월 정기연주회 모짜르트 대관식 미사
포레 레퀴엠 공연 예정 / 문의: 010-6292-6225
성악 전공자, 성가대 유경험자 환영

아퀴나스합창단 단원 모집

1967년 창단된 아퀴나스합창단이 88회 정기공연
(구노의 오라토리오 '구원, Redemption', 2025년 4월)을
함께 할 단원(55세 이하, 전공무관)을 찾습니다
오디션 문의: 010-8000-3194 총무

미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12월19일(목) 오전 10시, 사당5동성당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12월18일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12월19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글라셋선교수도회 서울후원회 월례미사

때, 곳: 12월16일(월) 11시, 글라셋선교수도회 본
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7764-6031

용산성당 영어미사 봉헌 / 문의: 02)719-3301

용산성당 중고등부 미사는 매주 영어미사로 봉헌됩니다
때, 곳: 매주(일) 11시, 용산성당 소성전

12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12월18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때, 곳: 12월16일(월) 14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문의(접수): 02)6253-3373, 010-8360-3700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때: 12월20일(금) 11시~14시 / 접수 필수
곳: 예수성심전교수도회 본원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 문의: 02)749-4596

중남미 해외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때, 곳: 12월23일(월)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
층 소성당 / 집전: 염수정 추기경, 송영호 신부

안내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문의(예약): 010-3173-2665 최영민 신부(예수회)

서초동성당 첼름 오케스트라 연주회 / 문의: 02)515-5123

때, 곳: 12월18일(수) 11시30분, 롯데콘서트홀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상담·문의: 02)990-9366 (월~금) 10시~16시

전진상 영성센터

전문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모래놀이치료,
종합심리검사·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곳: 명동 / 문의: 02)726-0700(www.jiscen.or.kr)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IPC

대상: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으로 전문적
인 심리상담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곳: 선릉 /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가톨릭여성연합회 12월 정기월례회

내용: 송년 미사 및 연말 나눔 행사
미사: 김연범 신부(사목국장)
때, 곳: 12월17일(화) 10시30분, 명동대성당 문화
관 2층 소성당 / 문의: 02)778-7543

일원동성당 훈인미사 / 문의: 02)2226-2291

아름다운 성전과 카페, 리모텔링을 통한 쾌적한
웨딩환경, 전철 3호선 대청역 2분 거리, 300대 주차
때: (토) 12시 / 홈페이지: www.myilwon.com

익산 성글라사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컷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문의: 010-3201-0520 노경덕 신부(상담자)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바보의나눔 유튜브채널 '러브온탑'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이 대한민국 탑스타들의
선한 영향력을 담아 '킵을 쌓은 만큼 기부가 되
는' 신개념 기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매주(금) 오후 6시 스타들과 함께하는 러브온
탑,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유튜브 검색창에 '@러브온탑'을 입력하세요
(www.youtube.com/@러브온탑) / 협찬 문의: 02)727-
2507(fund@babo.or.kr) 바보의나눔 모금홍보팀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대인관계, 부부, 유학생, 사별, 우울,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 / 문의: 010-9146-7654

직원모집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사제식당 조리원(계약직) 모집

분야: 사제식당 조리원(계약직) / 문의: 02)740-9707, 8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 모집공고 참조

요셉의원(서울 영등포) 직원 모집 / 문의: 02)2634-1760

분야: 방문진료 전담 간호사 1명 / 요셉의원 홈페이
지(www.josephclinic.org) 공지사항 참조, 지원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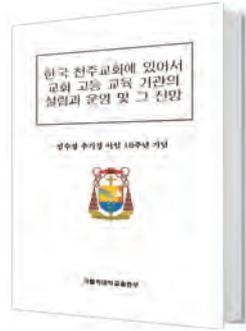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직원
모집 메뉴 반드시 참조 / 이메일(cphhr@catholic.or.kr) 접수

모집 분야	담당 업무
경영관리국	인사·총무
편집국	복디자인
프리에르 사업팀	웹·콘텐츠디자인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살레시오회	매일 네번째(토) 14시	수도원(대림동)	010-6221-3520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12월21일(토) 14시~17시	수녀원(경기도 군포)	010-4889-1830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서울관구)	12월22일(일) 10시~15시	서울관구 본원(전철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010-5830-3217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867-3217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수시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199-4995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한국 천주교회에 있어서
 교회 고등 교육 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그 전망**
 염수정 추기경 서임 10주년 기념

염수정 외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336쪽 | 1만5천원
 문의: 02)740-9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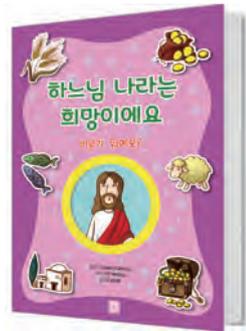
이 책은 사제 양성에서 교회 대학이 접하는 올바른 의미가 무엇인지 짚는다. 이어 교회 대학이 사제 양성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법적 요청을 넘어서서 현대 한국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복잡한 상황에서 건전한 교리와 규율에 바탕을 둔 지혜로운 사목자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신간
**별빛 마음 예수님 마음
 - 성탄이 뭐예요?**

아우로라마니 지음
 생활성서사 | 36쪽 | 1만원
 문의: 02)945-5987

가톨릭 교리 입문서 “뭐예요?” 시리즈 중 하나인 《별빛 마음 예수님 마음》은 매년 기념하는 성탄의 참 의미를 어린이들에게 일깨워 주는 성탄 교리 입문서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탄에 관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과 성탄의 의미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을 배워 알도록 한다.



신간
**하느님 나라는
 희망이에요
 - 비유가 뭐예요?**

프란체스카 파브리시 지음
 생활성서사 | 36쪽 | 1만원
 문의: 02)945-5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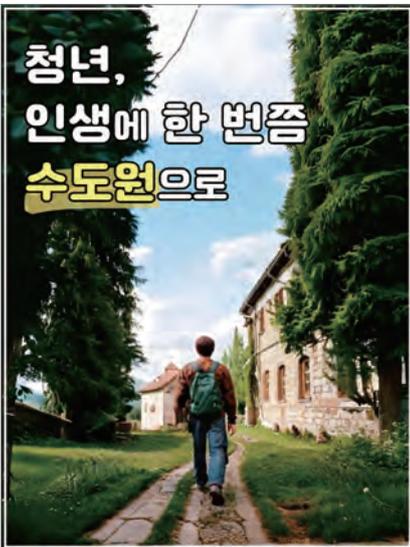
가톨릭 교리 입문서 “뭐예요?” 시리즈 중 하나인 이 책은 복음 속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담긴 의미를 가르쳐 준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그곳에 이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말씀의 속뜻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게 풀이해 주고 있다.



신간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

한경아 지음
 성바오로출판사 | 160쪽 | 1만5천원
 문의: 02)945-2947, 010-2572-1365

이 책은 성직자, 수도자 총 열한 명이 쓴 하느님 체험 에세이 모음집이다.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에서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성소를 식별하고 결단을 내리며 나아가는 과정이 꾸밈없이 소탈하게 담겨 있다. 하느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 사람으로 이끄시는 모습이 신비롭고 가슴 먹먹하게 펼쳐진다.



cpbc 방송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기념
 청년 수도원 스테이 ‘YOU세미나’**

진행: 2025년 1월~2월(2박 3일)
 참가대상: 만 15~35세 청년·청소년 / 12월 17일까지 접수 마감
 문의(신청): 카카오톡 ‘YOU세미나’ / 문의: 02)2270-2618
 주최·주관: cpbc가톨릭평화방송,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한국 교회 축성생활의 해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기념해 진행되는 청년 수도원 스테이 ‘YOU세미나’가 열린다. YOU세미나는 청년들이 수도원에서 2박 3일간 머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 대해 질문하고 답할 수 있게 하는 ‘수도원 체험 프로그램’이다. 5곳의 수도원(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미래 천주성삼성지 수도회, 성바오로팔수도회,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천주교 사도직회(팔로티회))에서 각기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일정 및 참가 요건은 수도원별로 상이하므로,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새해를 수도원에서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